

<2015년 5월 15일 스승의 날>

- 선생이 새벽꿈에 ‘나의 기쁨 나의 소망’ 을
5절까지 그리도 심정 깊이 불렀다.

그리고 나서 깨어 바로 붓을 잡고 이 말씀을 썼다. 하루 동안 썼다.

- 모두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
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정 깊이 이 찬양을 부르고
오늘 말씀 들어 볼까요?

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
밤낮 불러서 찬양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.

<말씀 시작>

- **첫째**, 성자는 왜 오셨을까?

- ◆ <시대 구원자>를 믿게 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.

- ◆ <구원자>에 의해 ‘운명’ 이 생명이나 사망으로 기운다.

<구원자>를 안 믿으면, 성자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신다.

성자는 목적을 이루실 때,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하신다.

예수님 때도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
구시대 구약역사에서 새 시대 신약역사로 전환하셨다.

이 시대도 성자는 선생의 육신 쓰고 오셔서

구시대 신약역사에서 새 시대 성약역사로 전환하시며,
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목적을 이루신다.

성자가 선생을 통해서 행하셔도 <구원자>로 믿지 않으면
하나의 지도자나 평신도가 일반적으로 행한 것으로 본다.

고로 ‘뜻’ 이 이루어지지 않고, ‘목적’ 을 못 이루신다.

- **둘째**, 성자는 ‘자기 육으로 쓰는 선생’ 을
<성자>같이 믿고 <시대 구원자>로 믿게 하기 위해서
무엇을 하셨겠느냐.

- ◆ 수천 가지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다.
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수천 가지 행하셨다.

선생이 자체적으로 바닷물을 멈췄겠느냐.

그것도 서해안 몽산포에서,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, 두 번씩이
나?

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들이 ‘우연’ 으로 볼 수도 있다.
다른 사람들도 병을 고치고 능력을 부리기도 한다.

모세 앞에 다른 사람들도 능력을 부렸듯이 말이다.

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 일,
우연으로 본 것이 아님을 확신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.

곧,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행하게 하셨다.

- ◆ 성자는 ‘그의 육’ 을 쓰고 민족적인 심판, 세계적인 심판을 하셨다.

그런데 ‘누구를 심판하여 죽었다.’, ‘어떤 사고가 났다.’ 하면,
세상 사람들이 “어떻게 그러냐?” 하면서
화살이 날아오고 큰일이 나니
구원자가 성자께 올려서 성자가 심판했다고 말을 못 한다.

너희가 까놓고 세상에 증거했느냐.
심판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도 증거하지 못한다.

고로 암암리에 아는 자들만 깨닫고 간다.
성령을 받고 감동으로 각자 알게 한다.

- ◆ 또한 구교인 <천주교>와 신교인 <개신 기독교>는
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
482년 동안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전쟁까지 했다.

서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, 만나면 싸웠다.

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,
<성자>는 ‘선생’을 육으로 삼고 나를 데리고 다니며
이것을 보게 하시고 482년 만에 화합하게 하셨다.

<하늘의 주>와 <땅의 주>, ‘주체와 대상’이 같이 행하니,
48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다.

- ◆ 남자는 ‘여자’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하듯이,
하늘의 성자도 ‘땅의 첫 신부인 선생’을 쓰고 했다.

신랑인 성자와 신부가 하니 된 것이다.

선생도 ‘대상인 조은이’를 쓰고 행하니,
역사가 일어나서 ‘삼위가 보낸 자를 믿게 하는 표적’을 이루었다.

- ◆ 그동안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지구 세상에 각종으로 행하신 이유는 <선생>이 **보이는 성자**이며 **성경에 예언하고 2000년 동안 기다린** 그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.

- ◎ **셋째**, 성자는 ‘자신의 육으로 쓰는 자, 분체, 보낸 자’ 곧 ‘시대 구원자’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시려고, 선생을 연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새 역사를 시작할 <시대 말씀>을 주셨다.

- ◆ 선생이 15세 때부터 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연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새 역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.

선생이 준비가 되니 성자는 <시대 말씀>을 주셨고, 선생은 ‘그 말씀’을 가지고 행하며 ‘성경의 각종 예언들’을 이루며 왔다.

- ◆ 선생이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들을 보면 특히 수리적인 부분을 딱 맞추어 이루었다.

<때>에 대한 것이다.

- ◆ <때>는 아무나 맞출 수도 없고, 알 수도 없다.

다른 사람들은 ‘태어난 날’도 다르고, ‘시대’도 다르니 <때>를 맞출 수가 없다.

‘그 시대’를 맞춰야 하고, ‘연도’를 맞춰야 하고,

‘달, 날짜, 시간’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.

<3.16>같이 ‘해, 달, 날, 시간’까지 맞춰야 된다.
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를 알아야 된다.

- ◆ 선생은 <때>를 맞추어 행하여 ‘시대의 뜻’을 펴고,
영들과 혼들이 천국까지 가서 확인하게 했다.

그리고 휴거되는 것도 보게 했다.

이것이 <시대 구원자>라는 근거다.

그는 ‘알파와 오메가’를 딱 맞춘다!

- ◆ 전자를 보아라.

그곳의 최고 지도자는 자기를 메시아로 믿게 했다.
그러나 이상하게 ‘때’가 안 맞으니 모두 의심했다.

- ◆ <때>는 매우 중요하다.

사주팔자를 볼 때도 <때>가 좋은지 본다.

<때>가 안 맞으면 ‘삼위가 보낸 자’가 아니다.

하나님은 절대 <때>를 맞춰 행하시고,

메시아도 <때>를 맞춰 나타나고 <때>를 맞춰 행한다.

- ◆ 지구가 생긴 후, 종교 역사가 시작된 후
누가 <천국>을 그리 자세히 보고,
<황금성>까지 알고 본 자가 있느냐.

<천국>은 없다 하는 자는 <천국>을 못 봤기 때문이고,

<황금성>은 없다 하는 자는 차원이 안 되어 못 봤기 때문이다.

<하나님 보좌>가 큰 집만 하다고 하는 자는

그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서 봤기 때문이고,

지구만 하다 하는 자는 아주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이다.

<천국>도 <황금성>도 그렇게 자세히 보여 준 것은

이 지구 세상에 ‘섭리사’ 밖에 없다.

- ◆ 또한 성자는 3500회 이상 100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계속 <계시>해 주시며 <영계>를 보여 주셨다.

이 같은 역사는 <신약>에도 없었고 <구약>에도 없었다.

- ◆ 미국의 ‘세계적인 영계의 거성’ 이라고 하는 자들을 봐라.
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며 책도 썼다.

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 주셨는데 자세히는 못 봤다.

봤더라도 자기들 수준대로 조금 보고 왔다.

섭리사의 계시자들이 간 곳은 한 번도 못 가 본 자들이다.

그들이 예언한 것이 맞았냐? 틀렸다.

왜? <영적 전쟁>을 ‘육적’ 으로 본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섭리사 계시자들의 예언은 100% 다 맞았다.

- ◆ 미국에서 나오미 목사가 그들을 만나 봤다.
- ◆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들 중의 한 명은 선생을 ‘이단’ 으로 봤다.

선생이 너무 기가 막혀서 성자에게 이야기했다.

“아니, 어떻게 된 일입니까?

그들도 ‘하나의 선지자’ 인데,
선지자들까지 나를 이단으로 보고 공격하게 합니까?
도대체 그들에게 누가 계시를 주는 겁니까?” 했다.

성자는

“그런 것은 그 차원, 그 수준의 급으로 말하는 것이다.
기독교에서 너에 대해 이야기하니까
사람들 말에 영향을 받고 자기 의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.
그러니 이해해.” 하셨다.

선생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대로 기도하며

“그러면 제가 이 시대 사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,
저도 제 사명대로 물이 피가 되게 하겠습니다.” 했다.

이에 성자는 “내가 하마.” 하셨다.

- ◆ 원래 ‘영계의 두 증인’ 이 있었다.
그런데 한 명은 죽었고, 한 명만 남았다.

선생이 2009년에 그 사람을 먼저 발견하여
섭리사 전체에 이야기해 주었다.

<휴거 시대>의 ‘하나의 증인들’ 이었다.
한 명은 영계의 내적 증인, 한 명은 영계의 외적 증인이었다.

그러다 ‘영계의 두 증인’ 이 자취를 감추면서
성자는 섭리사에서 계시자들이 나오게 하셨고
그들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.

- ◆ 2009년 선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
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들을 증거했다.

그들이 본 것은 **영계, 지옥, 천국** 등이었다. 지금은 증거 안 한다.

<전환>

- ◎ 이제 본격적으로 **중요한 말씀**을 해 주겠습니다.

- ◆ <예수님 때> 예수님을 ‘메시아’로 안 믿었기에
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,
믿은 자들만 겨우 ‘뜻’을 이루었다.

그 당시에 예수님을 ‘메시아’로 믿었으면
이스라엘 민족이 ‘핵 중심 역사의 민족’이 되었을 것이고,
그로 인해 복음이 온 세상으로 빨리 퍼져 나가
온 세상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고 뜻을 뒀을 것이다.

예수님을 ‘메시아’로 믿지 못했기에
역사가 힘들었고, 더디게 펼쳐졌고, 뜻이 깨졌다.

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쓰고 나타난 자,
성자의 육, 그 분체를 ‘실제 주’로
100% 믿느냐, 안 믿느냐가 ‘운명’을 좌우한다.

- ◆ <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>께서 ‘예수님’과 함께하여

예수님을 ‘메시아’로 믿게 한 것이었다.

<삼위일체가 보낸 자>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

- 이것이 예수님 때나, 지금 이 시대나
성자가 이루시려 하는 동일한 목적이다.

보낸 자를 알고 믿어야 ‘구원’을 받기 때문이다.

보낸 자를 알고 믿어야 그 시대에는 ‘아들’이 되고,
이 시대에는 ‘신부’가 되기 때문이다.

보낸 자를 통해 ‘운명’이 좌우되기 때문이다.

- ◆ 성자의 육, 예수님을 그냥 ‘최고의 사람’으로 봐도
<구원>은 못 받는다. (이 시대도 그러하다.)
- ◆ <3.16>이 ‘휴거 날’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안 자들만 알았지?

“2000년 동안 신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
천사장이 나팔 부는 날이다!

성자가 떠나시는 날이 우리가 기다렸던 ‘휴거 날’이다.
휴거되어 성자와 같이 떠나는 날이다.” - 이와 같이 안 자 있느냐.

알았으면, 그날 왜 안 왔겠느냐. 알았으면, 왜 안 외쳤겠느냐.

각자 암암리에 ‘오늘 휴거되어 성자와 같이 가는구나.’
감동받고 느낀 정도였다.

확실히 알았다면 마이크를 잡고

‘오늘이 휴거 날이다. 휴거되어 성자와 같이 간다.
신랑 집 천국에서 혼인 잔치가 열린다.’ 하고

10초만 확실히 말하였어도 다 알았을 것이다.

고로 전체가 확실히 모르고 그날을 보냈다.

암암리에 알고 전체에 알리지 못하여

그날을 제대로 맞지 못하여 ‘한’ 이 되었다.

◆ 이와 같이 <주>도 암암리에 알면, 다시 ‘한’ 을 품어야 된다.

◆ 선생은 누가 정말 <주>를 알고 사는지 100% 안다.

어떻게? ‘하는 짓’ 을 보면 안다.

◆ 선생을 절대 ‘하나님이 보내어 성자의 육으로 나타난 자’

<시대 주>로 보고 대해야 ‘하나님의 한’ 이 풀린다.

◆ <3.16>에 ‘육’ 은 몰랐지만 ‘영’ 은 휴거됐다.

육이 모르니,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.

성삼위를 더욱 사랑해 드리지도 못했다.

이와 같이 <주>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으면,

‘육’ 이 기쁨도, 감사도, 사랑도 모른다.

<구원주>가 왔다가 그냥 가면

‘구원의 사명’ 을 못 한 것이 되니, ‘구원’ 은 시켜 준다.

그 대신 ‘본인의 육’ 이 모르니 **곤고함**을 면치 못한다.

◆ 육이 자기가 구원받고 휴거됐음을 알아야

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사랑하며

‘구원받은 것에 대한 복’ 을 누린다.

- ◆ <3.16>에 ‘자기 영’ 이 휴거됐어도 모르니,
‘영’ 만 기뻐하면서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.

그 후에는 알고서 한이 뗏혀 한탄하고,
다시 알고 기뻐하며 감사했지?

그제야 “내 영이 휴거됐구나!

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

정~말로 중요하구나!” 하고

월명동에서 모임만 하면, 거의 미쳐서 월명동에 밀려왔다.

<알과절>에도 10000명이 온다고 한다.

그날에는 많이 모이지 말고, 핵심만 와야 된다.

- ◆ 지금도 자기 영이 휴거된 것을 모르는 자는 곤고해하며
“어서 300선 휴거 이뤄야지.” 한다.

기뻐하고 감사하며 극적으로 ‘주’ 를 알고

주가 휴거시켜 준 것을 알고 믿어야 깨닫게 해 준다.

- ◆ <주>는 안 가르쳐 준다. <주와 일체 된 자>는 깨닫게 된다.

- ◆ <3.16 전>에 300선 휴거됐다고 알려 줬으면
태만해져서 더 행하지 못하여 휴거되지 않았을 것이다.

자기가 행한 것에다가

성령님과 성자와 선생이 해 준 것을 더해야 <휴거 점수>가 나온다.

180선, 200선, 230선, 250선에다

성령님 것, 성자 것, 선생 것 합치니 <휴거 300선>이 된 것이다.

그런데 ‘본인 것’ 만 계산하니, 휴거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다.

그러나 자기가 ‘100선 조금 넘게’ 만 해 봤다면,

자기 것이 너무 적어서

성령님 것, 성자 것, 선생 것 합쳐도

300이 안 나와서 그날 휴거되지 못했다.

- ◆ 성자가 그냥 가시면 원한이 되어서 웬만하면 데려가시는데,
왜 성자가 떠나실 때 휴거되어 같이 가지 못했겠느냐.

첫째, ‘죄’ 가 문제였다.

<육신>에 죄가 있으면 <영>에게도 죄가 있으니 안 된다.

<죄>는 금방 회개되지 않는다.

<죄>를 지은 대가로 그만큼 <의>를 행해야 되니

<3.16 날>에 어떻게 순간 데려가겠느냐.

- ◆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부족해도 괜찮다.

결혼식 때 인격, 인물, 키가 부족해도

신랑이 눈감아 줄 수 있다.

그러나 신부라면 ‘드레스’ 는 입어야 된다.

고로 2015년이 되기 전에

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‘죄’ 를 용서해 버렸다.

<죄>가 있으면 눈을 감아도 냄새가 나니까 사랑하지 못한다.

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준 것이다.

그래서 곧 회복하여 ‘드레스’를 입고 휴거된 것이었다.

성자와 주의 용서였다.

<중요>

- ◆ <300선>은 ‘운명의 결정 선’이다.

<300선>은 ‘남녀가 결합하여 사랑하는 단계’다.

<그 전>까지는 ‘만지고 데이트하는 단계’다.

고로 <300선 미만>과 <300선>은 ‘땅과 하늘 차이’다.

- ◆ 극적인 비유 - 사랑의 비유를 들겠다.

여자도 남자와 같이 사랑에 불타서

남자를 안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여자가 안 하니,

남자가 심정이 타서 뜨겁게 다 사랑해 주듯,

6000년 원한 꿈이 <휴거>인데

신부들이 포기하고 안 하고 있으니

성자가 먼저 사랑하여 휴거시켜 데리고 가셨다.

- ◆ 물론 <3.16 날>에는 신부가 눈치 채고

미쳐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며

성자를 미치도록 부르며 사랑한 자들도 있다.

그래서 <3.16>에 성자가 휴거시켜 데리고 간 영들도 있다.

- ◆ 300선까지는 성자와 주가 해 주었다.

300선부터 400, 500, 600, 700선에 오르는 것은

신부가 신랑을 먼저 사랑하면서 절대 본인이 책임을 다하며

성령을 받아 주와 일체 되어 주의 뜻을 달고 행해야 된다.

천국에 가 봐라.

<700선>이 된 자가 있으니, 그 집도 성도 가 보아라.

그가 누구이겠느냐. 깨달아라.

◆ 차원이 올라가려면, 먼저 사랑이다. 먼저 올라타기 신앙이다.

(이 말씀은 3월 13일 금요 성령집회 말씀으로 자세히 해 주었다.)

- ◆ 성자와 주를 ‘먼저 사랑’ 으로 대해야
짝사랑을 벗어나 ‘신부’ 로 변화된다.

◆ <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것>은

신부가 먼저 사랑해 주지 않고

신랑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만을 원하는 것이다.

<신랑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>은

신부가 불타서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다.

이 둘의 운명은 ‘땅과 하늘 차이’ 다.

- ◆ 이 시대도 그러하다.

이 역사는 지구가 생긴 이래

땅에서 하늘 앞에 ‘최고의 사랑의 조건’ 을 세운 자가

그 조건으로 세운 <사랑의 신부 역사>다.

그로 인해 성삼위 앞에 최고로 큰 자, ‘신부’ 가 된 것이다.

형제가 크냐, **자기가 미쳐서 사랑하고 사는 자가** 크냐.

- ◆ 이 시대 섭리역사는 삼위일체 앞에 <신부 역사, 성약 세계>다.
<애인> 외에는 안 보이는 세계다.

- ◆ <대상>이 ‘먼저’ <주체>를 사랑하지 않고서는
휴거되지 못하여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못 이룬다.

왜 삼위일체의 대상인 ‘인간’을 창조했겠느냐.

먼저 사랑해 주는 자를 통해 삼위가 사랑받기 위해서다.

- ◆ 남자가 ‘사랑을 목적하고 택한 여자’라면,
여자가 남자에게 ‘양복’을 사 줘도 관심 없다.

‘집’을 사 줘도 관심 없다.

오직 ‘사랑하도록 몸을 주는 것’만 최고로 본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.

오직 <신부>로서 불같이 ‘먼저 사랑’하는 것을 최고로 보신다.

이렇게 ‘애인, 신부’가 되어

‘먼저 사랑’하게 만드는 데 6000년이 걸렸다.

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‘애인, 신부’로 삼고 취하여

<창조 목적, 사랑의 뜻>을 이루려고

선생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

그 뜻을 <휴거>로 이루기 위해 돕고 밀어주며 행했다.

하물며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랴.

- ◆ 안 믿고 행하지 않으면 본인 손해다.

<영혼>이 휴거됐어도 <육>은 곤고함, 걱정, 염려 속에 살게 된다.

- ◆ 자기가 먼저 차에 올라타고 사랑하기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성자가 계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,
이제 <성자>가 ‘그 육’에게 다 인계하여
그를 통해 다 행한다고 했다.

그 후로 뭐가 달라졌느냐. 말해 보아라.

지금도 <3.16 날>에 모르듯이 모르는 자들이 많다.
10명만 말해 보아라.

(<3.16> 후에 심정의 말씀 선포하며 가르쳐 주니,
집회나 모임을 보아라. 완전 뒤바뀌었지.)

- ◆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.
그냥 ‘우연’으로 된 일은 없다.

교역자들은 꼭 ‘정세’를 살피고 ‘뉴스’를 보면서
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.

- ◆ <휴거된 영들>이 성자를 따라서 천국에 간 이후,
천국에서는 <혼인 잔치>가 진행되고 있다.

이와 같이 땅에서는 섭리사에서 ‘땅의 잔치’를 하고 있다.
부활절, 꽃축제, 어린이날에 잔치했다.
선생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냐.
<성자가 주신 권세>를 가지고 한다.

<3.16> 때처럼 각종 잔치가 진행되고 있어도 모른다.
모르면,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.

- ◆ 눅 12:49 『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
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』

나는 땅에 ‘불’ 을 던지러 왔다.
깨닫고 ‘불’ 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어떠하겠냐.

오늘도 너희에게 ‘불’ 을 던지러 왔다.

<아는 것>이 ‘불’ 이다. <진리>가 ‘불’ 이다.

내 말을 듣고 깨닫고 알아 ‘불’ 을 받아라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허벅지 쪽 여자의 살을 보면 ‘금단의 열매’ 를 본 것이다.
가슴을 보면 ‘금단의 열매’ 를 본 것이다.
얼굴을 보면 ‘금단의 열매’ 를 본 것이다.

남자 얼굴을 보고, 살을 본 것은 ‘생명나무’ 를 본 것이다.

왜?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.

- ◆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...
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냐.

연결된 것은 ‘하나’ 다.

- ◆ 이 시대도 ‘선생’ 을 본 것은
하나님, 성령님, 성자를 본 것이다.

왜?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.

<보낸 자 - 보냄을 받은 자>

- 이렇게 연결되어 보는 자는 운명이 ‘생명’으로 기울어지고,
이렇게 안 보는 자는 운명이 ‘사망’으로 기울어진다.

삼위일체와 선생을 연결해서 안 보니,
주를 등지고, 섭리사를 나가서 악평자가 된 것이다.

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.

◆ 예수님은 “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...” 했다.

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연결해서 못 봤기에
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그리도 핍박하고 죽인 것이다.

또 예수님을 따랐어도 어설프게 믿고 따랐던 것이다.

◆ 보냄을 받은 자를 보면서 보낸 자를 보는 것이다.

이 <진리>가 그리 귀하고, 이것을 <아는 것>이 그리도 귀하다.

◆ 누가 직접 ‘과일, 생명나무’를 까서 보이냐. 은밀히 보여 준다.

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전능하신 ‘영체’ 시라 까서 안 보이신다.

전능자는 그가 ‘보낸 자’를 통해서 보이신다.

이 진리가 귀하고 귀하다.

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.

◆ 연결된 것은 하나다. <성자 승천>과 <휴거>는 하나다.

신랑은 승천, 신부는 휴거 아니냐. 항상 은밀히 말한다.

- ◆ 노아 때 홍수 심판 이야기를 했지?

심판 전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.

우리가 몰라서 그 설교를 하느냐.

그때와 같이 지금 우리도 그같이 했다는 말이다.

- ◆ 두 가지를 다 말하지 않는다.

하나만 말해 주고, 다른 하나는 깨닫게 한다.

<성자> 이야기하면,

<다른 하나인 휴거>는 이야기 안 하고 깨달아 알게 한다.

하나만 알고 연결된 것을 모르니, 그날을 제대로 못 맞은 것이다.

- ◆ <성자 승천> 하면, <신부 휴거>를 깨닫듯이,

<시대 주> 하면, <신부 편인 성령 상징체>를 깨달아라.

둘 다 확실히 알아야 성령 역사, 사도 역사가 일어난다. (추가)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선생은 특히 ‘3.16 휴거 전’ 까지 조은이를 쓰고 말씀하며 행했다.

교역자들은 그동안 조은이를 선생같이 보고 대하고

배우고 붙어서 행했어야 했다.

- ◆ 지난 6~7년을 돌아보아라.

선생이 조은이 외에 언제 누구를 쓰고 말씀한 적이 있냐.

범석이 쪽에도 말씀을 주긴 했지만,

90% 조은이에게 줘서 전하게 했다.

<성자>는 ‘대상인 신부, 선생’ 을 쓰고 하듯이,
조은이는 선생 앞에 ‘신부 전체의 축소판’ 이니까 조은이 쓰고 했다.

- ◆ 오늘도 이 말씀을 줘서 누구에게 보내서 전하게 하고 있냐.
선생이 성령과 함께 조은이 육신 쓰고 말한다.

- ◆ 조은이를 본 자는 ‘나’ 를 본 자다.

지금 조은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‘내 말’ 을 듣는 것!

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.

지금 조은이 통해 전하는 내 말을 들어라.

성령과 함께 외친다. 지금 못 들으면 못 한다.

- ◆ 섭리사에서 조은이가 선생을 제일 많이 본다.
나를 보고 뭘 하겠느냐. <말씀> 가지고 간다.
그냥은 안 가지고 간다. 뜨겁게 요리해서 가지고 간다.

말씀 요리 시간은 적게는 4시간이고,

기본으로 12시간, 어느 때는 3~4일씩

기도하면서 뜨겁게 요리하고 잘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.

조은이처럼 할 수 있는 자 없기에 조은이에게 맡겼다.

- ◆ 너희도 말씀을 뜨겁게 요리한 후에 설교해서
<성령의 불>을 일으켜 봐라. 해 봤지?

성도들은 모두 은혜 받으러 오는데,

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.

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앞으로는 ‘성령의 불’ 이 있는 자를 세워라.” 하셨다.

그리고 성령님은 조은이처럼 행하는 자, 전체에게 불을 주신다.

- ◆ 섭리인들이 조은 목사가 언제 와 주냐고 묻는다.

나와 같이 일체 돼서 믿어 주고 모셔 가야지.

- ◆ 내 말을 알아들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
성령께서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셨나.

성령님은 성령님을 닮은 자를 대상으로 삼고,
그 사람을 ‘상징체’ 로 쓰고 나타나신다고 했다.

성령이 계시한 말을 깨닫고 믿어라.

- ◆ 성령님은 여성이시니 여자 중에서 ‘상징체’ 를 세워서
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신다.

선생이 ‘금단의 과일이 있는 여자의 몸’ 이냐.

- ◆ 성령이 ‘여자’ 를 쓰고 나타나면
육안으로 그대로 성령님을 느껴 보게 된다.

<엄마>가 ‘딸’ 을 보이면서 “나 이렇게 생겼다.” 해야
자신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겠느냐.

성령님도 그러하다.

<남자>를 보이면서 “나 성령은 이렇게 생겼다.” 하겠냐.

- ◆ 성령은 ‘여자 중에서 합당한 자’ 쓰고, 그를 <상징체>로 삼아서

그를 쓰고 <성령의 역사>를 일으키셨다.

그것을 믿고 ‘성령님이 상징체를 쓰고 행하시는구나.’

절대 믿고 쳐다보는 자에게는 즉시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셨다.

- ◆ 조은이가 설교할 때 선생의 영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설교한다.

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선생에게 보내온 편지를 보면,

불과 몇 명만이

“정말 선생님이 조은이 쓰고 나타난다.

성령의 상징체가 맞다.” 하며 고백했다.

나머지는 ‘일반적’ 으로만 생각했다.

- ◆ 선생이 보냈으니 조은이를 선생같이 보고 일체 되어 의논하고 뭉쳐서 했으면,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.

진정 그렇게 했다면, 내게 다 보고되었을 것이다.

- ◆ 성자는 말씀하셨다.

“헉은 주다. 선생은 나의 분체다. 나의 몸이다.

나와 선생을 하나로 보아라.

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도록 수천 가지로 역사했다.

성령님도 ‘상징체’ 를 쓰고 나타나서 행하신다.

고로 성령과 상징체를 하나로 보아라.

나 성자도 ‘영’ 이라서 땅에 나타날 때는

영체 혼자서는 못 나타난다.

그래서 ‘선생 육신’ 쓰고 나타났다.

성령도 ‘영’ 이라서 땅에 나타날 때는
꼭 ‘합당한 자’ 를 택하여 ‘그 육신’ 을 써야 된다.

그가 보이는 성령이다.”

- ◆ 선생이 눈에 보이게 실감 나게 성령님을 보여 달라고 했다.
보여 주셨는데 ‘영’ 이었다. 만지니 안 만져져.
<영체>이니 ‘육체’ 가 만졌을 때 실감이 안 났다.

성령님은 “실감 나게 보여 주마.” 하셨다.

그래서 “밤에 오랫동안 보여 달라고 해야지.” 하며
낮에 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부르며
그리도 성령님을 챙기며 잘해 드렸다.

차도 타 주고, 음식도 대접해 드렸다.

그런데 성령님은 성자와는 달라.

성자도 ‘영’ 이라서 땅의 음식은 안 드시지만,
대접해 드리면 “같이 먹자.” 하셨다.

그런데 성령님은

“안 먹어. 나는 천국에서 갓다 먹는다.

땅의 음식은 보기만 하자.

천국 음식은 맵지도 않고 깨끗해.” 하셨다.

여성체라서 그 심정을 깨닫기가 참으로 까다로웠다.

- ◆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깔끔해야 된다.

죄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.
더러우면 성령님이 떠나가신다.

- ◆ 성령님이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님께 참 잘했는데,
벌써 5시간 동안 안 보여 주셨다.

그러다가 시간이 됐고, 조은이 면회가 있어서 나갔다.

면회가 시작되고 조은이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,
‘조은이’의 모습이
‘꿈에서 본 성령님의 형상’으로 뒤바뀌었다.

그때 ‘성령님이 이와 같구나!’ 깨닫고 세밀히 봤다.

<조은이>가 ‘성령님’과 겹쳐 보이면서,
성령님은 ‘영체’ 시라 <육계>에서 나타날 때는
천생 이같이 ‘상징체의 육신’을 쓰셔서
<육의 눈>으로 실감 나게 보이는구나!’ 깨달았다.

- ◆ 성령님의 머리는 긴 머리이고,
얼굴형은 계란형이다. 동그란 형은 아니다.

키는 2~3m로 보인다. 영의 크기니까.

그리고 허리는 잘록하다.

- ◆ 성령님의 분위기나 이미지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온다.
자신이 그 급에서 느껴야 된다.

- ◆ 선생이 꿈에 성령님을 보면 처음에는 ‘일반 여인’ 같이 보인다.
그러다 깊이 보면, 점점 형체가 변화된다.

그런데 성령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잘 안 보인다.

성령님은 거의 ‘본체’로 활동하신다.

다만 자기 영급대로, 혼급대로, 정신급대로 사람같이 보인다.

성령님이 육신 쓰고 나타나도 저마다 영급대로만 보인다.

자기 시력대로만 사물이 보이듯 한다.

- ◆ 면회 때 ‘성령의 영체가 조은이 육신 쓴 것’을 보고 와서 성령님을 실감 나게 봤다고 했다.

그랬더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성자도 너를 통해 보여야 실감 난다.

더 이상 실감 나게 볼 수는 없다.

고로 ‘성자의 육’이 죽으면 <휴거>도 끝난다.

성자는 ‘보낸 자의 육신’을 통해 100% 봐야 된다.

그래야 확실히 보이고 능력이 온다.

나 성령도 <영>으로 나타나면 <너희 육>이 만져도 안 만져진다.

고로 ‘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여자’를

나의 상징체로 삼고 역사한다. 그래야 실감 난다.

먼저 조건을 세우고 올라온 조은이 한 사람을

핵 상징체로 삼고 행하고,

나머지는 그때마다 임해서 쓴다.” 하셨다.

- ◆ <선생>은 사명으로 볼 때 ‘신부’다.

신랑 성자 앞에 첫 신부가 되어 성자와 일체 되어 했다.

성자가 천국에 가셨어도 ‘보이는 몸’과 일체 되어 해라.

그러면 성자가 늘 역사하신다.

선생은 ‘신부’ 라서 신부의 근본은 성령님과 일체다.

- ◆ <구약>은 성부 아버지시대, <신약>은 성자 아들시대다.
<성약>은 성령 신부시대다.
고로 선생은 사명으로 볼 때는 ‘성령체’ 다.

그러나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
선생을 믿고 따른 자들 중에 한 사람 뽑아서
그를 ‘성령의 상징체’ 로 뽑아서 쓰신다는 것이다.

- ◆ 가정에서 엄마를 가장 많이 닮은 자는 작아도 ‘딸’ 이다.

성령님은 ‘여자 중에서 세운 자’ 를
<상징체>로 삼으시고 그를 쓰고 나타나신다.

지금까지 기성의 부흥강사들에게 나타난 것과는
비교가 안 되게 성령의 역사가 크다.

기성의 부흥강사들은 <자녀권 성령의 부흥강사>다.

지금 이 시대에 세운 조은 목사는
<애인권 성령의 부흥강사>다.

최고다! 휴거시키는 성령 부흥강사다.

마치 전에는 엄마가 ‘아들’ 을 보이면서
아들을 쓰고 나타나 행했다면,

지금은 천모 성령님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
“나 이렇게 생겼다.” 하며 직접 보여 주며 쓴다.

지금 이 시대는

<삼위의 창조 목적>을 이루는 때라 다 밝히며 행하신다.

- ◆ 영계에 영이 들어가서 성령님을 보는 단계는
엄마가 목욕탕에서 지체를 다 보이면서
“엄마 멋있지? 최고지? 나 이렇게 생겼다.” 하는 격이다.

- ◆ <영>은 ‘영’ 으로 봐야 된다.

그러나 ‘육’ 으로 보려면,

‘분체’ 를 보고 ‘성령 상징체’ 를 봐야 된다.

(하나님, 성령님, 성자 분체 - 성령 상징체

성령 상징체의 역할 - 역시 주를 깨닫게 하는 것)

- ◆ <천국 황금성>에 못 간 자들은
계시자들의 계시를 읽고 상상해서 생각해 보아라.

계시를 보고 상상만 해 봐도 90% 다 맞다.

계시자들이 본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. 환상이 아니다.

선생이 계시자들에게

“천국에 혹시 이런 건물 있는지 찾아봐라.” 했더니
정말로 그 건물을 보고 왔다.

- ◆ 영계에서도 짧은 치마도 입고, 수영복도 입고 다닌다.
<영계의 문화>가 곧 ‘땅의 문화’ 다.
그러나 땅에서는 영계의 것들을 타락되게 쓴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오늘 말씀의 핵심>은

<성자>는 ‘구원자’를 ‘주’로 믿게 하기 위해
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리도 역사하셨다.

그래야 ‘메시아’를 믿고, ‘그의 말’을 믿고
<창조 목적>을 이루기 때문이다.

왜 결혼해서 사랑해 주며 관계해 주냐.

“너는 내 부인이다. 너는 나와 한 몸이다.” 하고
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. 다

◆ 성령님이 왜 ‘성령의 상징체인 조은이’에게만 그리도 크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느냐.

“그는 선생의 몸이다. 선생과 일체다.

선생이 조은이 쓰고 행한다.

그러니 그 말 듣고 선생을 제대로 알아라.

또 조은이는 ‘보이는 성령’이다.

그를 보고 그 말 듣고 <성령의 역사> 알고

<시대의 주>를 바로 알고 휴거되어 살아라.” 함이다.

◆ 이제 이때는 끝났다.

<한 때>가 가고 <남은 한 때>가 남았다.

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다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.

<3.16>도 제대로 몰라서 못 맞고 아쉽게 보냈지만,
후에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하듯 해라.

◆ 특히 섭리사의 지도자들이

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조은이와 일체 되어 했다면
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.

그를 통해 ‘선생’도 나타나고 ‘성령’도 역사하셨으니까.
〈성령〉을 받고 〈주〉를 제대로 알면 불덩어리니까!

◆ 조은이와 일체 되어

조은이를 선생으로 보고 모시며 대한 자의 천국 집은
조은이 성에 붙어서 건설되어 있다.

그 옆에 붙어야 좋아. 왜?

〈조은이 성의 성벽〉이 ‘선생의 성 옆’에 붙어 있으니까.
비밀이라 다 말은 안 한다.

영계에 다니는 자들은 본다.

〈조은이 황금성 집, 성〉에 최고 가까이 있는 집들은
조은이를 선생으로 보고 쫓고 따르는 자들의 집이다.

◆ 선생 나가면, 조은이 계속해서 나와 같이 일한다.

◆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자들은 안 된다.

지금 것은 지금 못 하면 못 하고 끝난다. .
지금 하는 자가 그때에도 할 자다.

◆ 조은이에게 말했다.

“〈성령 그룹〉 만들어라. 〈네 족속〉을 만들어라.

그러면 너도 더 엄청나게 된다.

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 터전 위에 성령운동 해라.

그러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후에
그 위에 마른 통나무를 쌓아 놓고 불 지른 격이 된다.

그러면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 터전 위에
네가 성령으로 불을 지르니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.

설교도 교역자 300~400명이 모두 너같이 되게 하자.
그동안 6~7년 동안 보고 배웠으니 이제 하면 된다.”

하고, 조은이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며 교육하게 했다.

- ◆ 지금은 모두가 일어나 주를 증거해야 된다.
자기가 본 것, 느낀 것, 깨달은 것들을 자기가 증거해야 된다.
교회에서는 각각 증거하며 말해도 된다.

- ◆ 영계에 가서 ‘성자’를 보려면 힘들지 않느냐.
그러나 성자가 <육>을 쓰고 나타나니, 육은 보기 쉽다.

지금 선생은 1년에 250번 볼 수 있다.
그마저도 못 보면 또 ‘보낸 자’를 쓰고 보면 된다.

내가 나가면 매일 볼 수 있다.

- ◆ 사람이 차원을 높인다는 것이 뭐냐?
연결된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차원 높여 보는 것이다.
살덩이 보면 과일덩이 본 것으로 느끼고 행하는 자다.

보냄을 받은 자를 100% 보낸 자로 보고,
그 말을 듣고 100% 행할 때 성자와 겹쳐 보인다.

바로 그런 사람이 한 차원 높이 보고 생각한 것이다.

섭리인들은 ‘보낸 자 선생’ 을 ‘성자’ 로 보니,
성자가 재림하신 것을 알고 한 차원 높이 삶으로
신부가 되고 휴거된 것이다.

- ◆ <성령님 본체>도 얼마나 보기 힘들냐.

(본 사람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며 은혜 나누자!)

<성령 본체>를 보기 힘든데 ‘육신’ 통해서 보면 얼마나 좋으냐.
<육신 쓴 성령>은 실감 나게 눈만 뜨면 계속 본다.

- ◆ 꿈에도 성령님 ‘상징’ 으로 ‘여자’ 로 보인다.

- 조은이로 보이고,
- 여자인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자기 부인으로 보이고,
- 엄마로도 보인다.

처음에는 ‘여자’ 로 보이다가
점점 ‘성령의 형체’ 로 변화되어 보인다.

- ◆ 선생은 <성자>가 ‘예수님’ 으로 보였다.

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 <성자 본체> 선포되니,
성자는 더 이상 ‘예수님’ 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.

또 꿈에 ‘초등학교 선생’ 으로 보여서
죽은 스승이니 바꿔 달라고 기도했다.

그래서 지금은 성자가 다른 자로 나타나신다.

누구? ‘조은이’로 나타나신다.

왜? 내가 원하는 자, 내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서 보여 달라고 했다.

성자는 내 사랑이니까.

내가 인식을 달리 하니, 성자는 그렇게 나타나셨다.

이와 같이 인식을 모두 바꿔야 된다.

그래야 꿈에 성자도, 선생도, 성령님도 합당하게 나타나신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 주고 마치겠다.

- ◆ 독일에서 중고등부 때 섭리에 온 한 여자 이야기다.
월명동 잔디밭을 넘어가서 기도했다.

선생님 못 만나도, 면회 못 해도

아빠가 없을 때 선생님이 아빠같이 편지해 주고,

친구가 없으니 선생님이 친구같이 대해 주고,

또 애인이 없으니 선생님이 애인도 되어 주고,

엄마는 있어도 추억 만리 떨어져 있어서 못 보는데,

선생님이 갇혀 있어도 엄마도 되어 주면서

늘 ‘자기의 대상’이 되어 준다고 하며 기도했다.

그러니 그러하다고 감동이 왔단다.

- ◆ 그리고 최고로 원하던 ‘휴거’도 되었으니
감사하다고 고백했단다.

- ◆ 이때 뭔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나서
‘뺨인가?’ 하고 눈을 떠 보니,
앞에 ‘큰 노루’가 서 있었단다.

쳐다보니 너무 귀엽고 예쁘고 멋있었다고 한다.

- ◆ 이것을 보고
‘성자와 선생님이 오셨구나! 노루로 나타나셨구나.’
믿고 생각하니, 감격하여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.

- ◆ 그래서 선생이 편지로 답을 주었다.

“네가 깨달으니, 내가 노루 타고 갔다. 만물 계시다.

이같이 네가 받은 것 깨닫고 제대로 하면 만물 타고 나타나는데
선생이 사명을 준 자, 성령의 상징체 통해 안 나타나겠냐.

바로 생각해라.

<3.16> 때 못 깨닫고 못 했다고 탄식하지 말아라.” 편지해 줬다.

- ◆ 유럽에서는 중고등부들도 가까이 대하면
남자도 여자도 이성으로 대하니,
선생이 의식하고 멀리 하니 다 나갔다.

그래서 그 후 3년 동안 기도해서
독일에서 중고등부가 왔고, 그가 후자가 되었다.

- ◆ 그런데 이 애는 인식관이 있었는데,
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것이었다.

그래서 ‘유치원 근무’가 소원이었다.

아기 기르는 것을 배우려 함이었다.

선생이 편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관이 없어지지 않았다.

왜? 외동딸이라서 자기도, 엄마도 외로우니까.

아기를 많이 낳아서 살고 싶어 했다.

그러한 마음이 굳어져 살았다.

◆ 결국 선생을 아기로 보고 키워라.

나도 너를 아기로 보고 길러 줄게.

그리고 친구도, 애인도, 아빠도, 엄마도, 구원자도,

아기 역할도 다 해 줄게. - 했다.

◆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한 것이다.

선생이 친구도, 애인도, 아빠도, 엄마도, 구원자도,

아기 역할도 해 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니,

내가 성자와 함께 ‘노루’를 타고 간 것이다.

◆ 월명동에 ‘노루’가 쉽게 보입니까?

일주일을 다녀 봐라. 거의 못 본다.

노루는 가까이 안 온다.

◆ 모두 <만물 계시> 귀히 보아라.

삼위일체와 주는 ‘새, 동물, 바람, 구름, 사람’ 등을

쓰고 나타나시니 귀히 보아라.

설교할 때 ‘성령 이야기’ 하면,
조은이 옷만 ‘바람’ 으로 흔들지 않느냐.

그래도 보통으로 본다. 바보다. 10대들도 보고 편지한다.

- ◆ 자기가 자기를 바보, 소경으로 만들지 말아라.

자기가 마음의 인식관을 바꾸고, 눈을 떠야 된다.

삼위일체도, 주도 늘 ‘육신’ 쓰고 나타난다.

생각의 눈을 떠라.

선생 보고 싶어 하니, 말로 하고 이야기해도 모르냐.

- ◆ 악한 자들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을 이기도록

교역자들은 교인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가르쳐라.

오늘 들은 것도 가르쳐라.

- ◆ 면회 때 조은이가 “저 교역자들에게 갑니다.” 해서

이 길고 긴 글 써서 보낸다.

- ◆ 선생이 조은이를 사랑하듯 모두 사랑한다.

그러나 ‘나’ 와 붙고, ‘내가 보낸 자’ 와 붙어야 느낀다.